

침묵하십시오

드꽃편지 652

2023.5.21. 소만

<https://cyw.pe.kr>

착각은 자유라지만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나의 ‘구원’은 내 의지 50%와 하나님의 뜻 50%가 합쳐져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문밖에 서서 들어가고 싶다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부르심(call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먼저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이 들어오도록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할 일은 오로지 내 의지로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마음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성령님 없이 자기 맘대로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름의 길목에서 최용우 올립니다.

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반대합니다.
내가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어서 반대합니다.
일본 정부도 틀렸지만 이에
동조하는 한국 정부도 싫습니다.

福島原発汚染水を海に放流
することに反対します。
私は韓国人ではなくクリスチ
ャンだから反対します。
日本政府も間違っていますが、
これに同調する韓国政府も嫌いです。

태평양 연안 12개 국가의 결사 반대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나라만...

일본은 후안무치 한국은 바보천치

천명(天命)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든지 그를
보살펴주어야 한다는 것은,
그 경우에 해당되는
무슨 법조문이 따로 있든 없든
그것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사람의 양심에 새겨져 있는
하늘의 명령(天命)이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명(命)을 알면서 따르지 않았고,
사마리아인은 그 명을 따랐다.
그뿐이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43 주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원주에서 힘겹게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지하 조그만 교회에서 생활하시다가 주공 임대 아파트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면서도 교회가 없어져서 마음 아파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아파트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시다 보면 주님은 분명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하고 말씀드렸더니 기쁜 마음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하고 난 뒤 여쭙어보니 짐도 없어 조그만 용달차로 몇 가지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세탁기나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심지어 선풍기조차 하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세탁기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탁기나 하나 사 드려야겠네.” 알아보니 50만원 정도 하였습니다. 며칠 지나니 마음이 수 갈래로 변하였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뭐.” “30만원만 보내드릴까?” “아내한테는 뭐라고 말을 해야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봉고차 종합 검사가 때가 되어 받으러 갔더니 매연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습다. 검사 때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4등급 차량이라 나라에서 지원하는 매연 저감 장치도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문 카센터에 갔더니 무조건 50만원 달라고 합니다. 50만원도 가장 싸게 부른 거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50만원을 지출하고 차를 수리하여 매연 재검사를 받아 통과를 하였습니다.

생각지 못한 거금을 지출하고 속이 쓰린데, 문득 한 달 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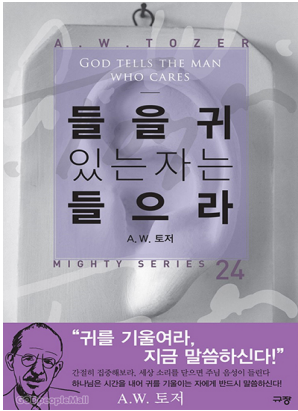
“오 주님 용서하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셧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토저 마이티 시리즈 24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40쪽 13,000원 규장 2017

“귀를 기울여라, 지금 말씀하신다!”
간절히 집중해보라,
세상 소리를 닫으면 주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은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라

1. 살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유연장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글이다. 하나님의 살아 있는 음성이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면, ‘기록 된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그분이 그분의 세상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

2. ‘부재자 하나님’의 시대

성경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교리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대는 ‘부재자 하나님’의 시대이다. 아기가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 만족할 수 없듯이,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의 삶이 가능하지 않듯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만족하거나 건강할 수 없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다면, 그 집회가 형편없는 모임으로 전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3. 우리의 눈물을 찾으신다.

성경은 눈물로 쓰였기 때문에 최고의 보물을 눈물에게 선사한다. 세상을 흔들여 놓은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슬픔의 사람이었다. 선지자들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글을 썼다. 하나님은 회개와 겸손과 눈물을 찾으신다. 우리 그리스

도인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겸손과 눈물을 다시 찾는 일이다.

4. 가만히 있어야 알 수 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편46:10). 이것이 우리 조상의 믿음이었고, 성경의 가르침이다. 또한 우리의 내적 확신도 ‘가만히 있음’에서 나오기에 우리에게만 가만히 있어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내면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5. 삼위 하나님인 성령

복음주의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와 속량의 모든 부분은 그분의 영에 의해 이루어졌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다. 성육신의 신비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이 ‘생명의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나무나 짚’(고전 3:12)일 뿐이다.

6.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이 계시해주신 모든 것이 서로 모순되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 모든 진리들이 가장 큰 진리 안에서 만나 조화를 이루고 그 가장 큰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요8:32)

7.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가치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거하시는 곳’이라고 교훈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해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유기적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모인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과 육신을 끊으면 그곳이 교회가 된다.

8. 조직화, 그 필요성과 위험성

‘조직화’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체의 몇몇 부분들을 잘 짜 맞추는 것이다. 조직화가 없다면 학문, 정부, 가족, 예술, 음악, 문학, 그리고 온갖 종류의 창조 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다. 생명도 조직화를 필요로 한다. 교회의 고동치는 심장은 ‘생명’이다. 오늘날 교회가 복잡한 조직화로 달려가고 있다. 첫째 원인은 ‘자연스러운, 그러나 육신적인 욕망’ 때문이다. 둘째는 ‘두려움’이다.

9. 교회가 세상을 본받아서 안 된다.

기독교가 본래의 기독교에서 벗어나게 되면 성경적 권위가 전혀 없는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나타나 교회를 분열시킨다. 기독교의 세 가지 주요 요소는 영적 생명과 도덕적 실천과 공동체 조직이다. 첫 번째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둘은 ‘당위적 입장에서 볼 때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 인간의 사회적 지위와 전혀 관계가 없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는 기독교가 아닌 순수한 기독교는 실제로 세상과 날카롭게 대립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을 때 교회는 세상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사회에 영향을 끼침으로 사회를 깨끗하게 했다.

10. 교회에 들어온 실용주의

교회 안에 들어온 실용주의를 깨뜨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의 활동을 지배할 권리를 갖고 계시다고 인정하면 된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무엇을 행해야 할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이 신약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교훈들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성경대로 행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11. 처음 신앙의 향기를 간직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추구할 때에만 비로소 영적 열정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다. 오직 그분만이 새로움과 신기함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하는 것만이 우리의 처음 체험의 아름다운 향기를 간직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샘에서 끌어온 물로 계속 채워주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작은 실개천은 틀림없이 말라버리고 말 것이다. 새로 회심한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지 않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12. 지도자에게 따르는 책임

오늘날 교회들의 상태가 이토록 형편없어지게 된 것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적 지도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 첫째, 두려움이다. 둘째, 경제적 압박이다. 셋째, 야망이다. 넷째, 지적 자만심이다. 다섯째, 진정한 영적 체험의 부재이다. 여섯째, 불충분한 준비이다.

13. 연설가인가, 선지자인가

연설가는 자기를 위해 말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 말한다. 연설가는 자기의 메시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며,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한다. 참된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는 하나님의 증거를 이 땅에 전하는 하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목자를 부르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진짜 목회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사명을 받은 자이다.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라는 부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부름은 성령의 은사와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14. 목회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들

목회자는 가장 위험스런 직업 중 하나이다. 마귀는 성령충만한 목회자를 미워한다. 그리스도 다음으로 미워한다.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위험들이 있다. 1. 특권의식: 목회자가 자신을 특권층에 속한 사람으로 여기게 될 위험이 있다. 2. 열의 없는 태도: 주님의 일을 대충대충 걸치레로 하는 습관에 빠지는 것이다. 3. 비현실에 갇힘: 그의 정신이 일반 사람들의 세계에서 유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동정심을 잃게 됨: 목회자가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지식을 자랑함: 성도와 죄인이 아닌, 종교적, 철학적 사상을 무의식적으로 사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6. 게으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편하게 지내는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선 농부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나 과학자처럼 고된 생활을 스스로 실행하는 것이다. 7. 지나친 융통성과 지나친 엄격함 8. 우쭐함과 낙심함: 하나는 성공해서 우쭐하는 것이고, 하나는 실패해서 낙심하는 것이다.

15. 속이는 자와의 전쟁

속이는 것은 언제나 효과적인 무기였는데, 이것이 종교의 영역에서 사용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7:15)라고 경고하셨다.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딤후6:20)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 예로 후메나오와 빌레도의 말을 들었다. 바울에 의하면, 그들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딤후2:17)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정신적 부활을 가르친 것이다.

16. 지혜롭고 용기 있는 분열

혼란에 빠진 양 떼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갈 때, 그 속에 있는 한 마리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양 떼에서 이탈하는 것뿐이다. 잘못된 연합은 모두의 멸

망을 초래한다. 자신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양은 전체에서 이탈한다. 동질적인 것들은 연합하고 이질적인 것들은 서로 나뉠 때 힘이 생긴다. 오늘날 기독교 단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연합의 증가'가 아니라 '지혜롭고 용기 있는 분열'인지도 모른다.

17. 인위적 분열은 해악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은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악이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해가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익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분열은 악이다.(행2:44, 엡4:3, 4:4-6) 어떤 이유 때문이든, 개교회의 교인들을 몇몇 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좋지 않다.

18. 세상에 바쳤던 충성을 거둬들이라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5:12) 인류 전체가 하나로 뿔뿔 뭉쳐봤자 인류의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 정죄가 내려질 뿐이다. 세상에 바치는 충성을 완전히 철회하는 길밖에 없다. 인류의 형제 관계는 기정사실이지만, 그 기정사실은 인류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정죄 받은 옛 형제 관계에서 빠져나와 그분께 오라고 부르신다. 이유는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19. 하나님은 진솔한 기도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말씀드리면, 그분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무엇이든지 하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간사한 속임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가 무지 중에 경솔한 기도를 드리는 잘못을 실제로 범했다 할지라도 사랑하신다. 그분은 무지를 고쳐주실 수 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자를 고치는 약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20.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얻기 어렵다.

설교의 결실을 풍성히 거두려는 목회자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기도 생활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는 그가 감당해야 할 일들 중 가장 힘든 일이 될 것이며, 그 역시 인간인지라 다른 어떤 것들보다 기도를 적게 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것이다. 그럴 때는 기도로써 승리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그의 육신부터 이겨야 한다. 기도를 언제나 방해하는 것은 육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면 청중 앞에 서서는 안 된다. 설교단에 한 시간 서려면 그 전에 하나님과 여러 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설교자는 대중 앞에 마련된 설교단보다 기도의 골방을 더 친숙하게 느껴야 한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설교는 때때로 하는 것이다.

21. 반복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다

시편 150편의 시가 들어 있는데 그 하나 하나가 모두 보물같이 귀한 것이고 예배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지만, 시편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모두 제거하면 남는 것은 5-6편으로 압축되고 말 것이다.

22. 세상 나라와 그것의 영광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제까지 교회가 세상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에게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세상을 가지라'는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셨지만, 지금 그 세상은 그분을 따르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교활한 계략으로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정통적 신앙을 가진 신자들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진짜 위험은 그들이 세상의 가치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겸손하게 몸을 낮추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참된 부흥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23. 생명의 원천을 가졌는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본래 목적이다. 설교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러면 설교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공적인 장소에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지혜의 샘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열고 성령을 모셔 들이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것들 때문에 지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과 사귀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늘리면, 굶주린 자들에게 줄 양식이 늘 풍족할 것이다.

24. 가식은 영혼의 질병이다

성경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설교단에 선 사람은 누구나 성경 자체의 분명한 권위를 어느 정도 자기의 것으로 삼고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성경은 최고의 사랑의 책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인 책이다. 성경의 저자들은 불친절하거나 무례하지 않으며, 예외 없이 정직하고 온전히 성실하다. 종교적 가식은 단순히 이런저런 잡다한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인간적 및 정신적 문제 때문에 생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혼의 질병이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에 의해서만 치료될 수 있다. 가식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다.

-이후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으세요.

정리: 이재익 목사(일본 니가타교회)

강아지풀

간질간질 강아지풀
보기만 해도
간질간질 간지럽다.

건들건들 강아지풀
바람만 불어도
건들건들 건들거린다.

복실복실 강아지풀
손바닥에 올려놓고
복실복실 복실강아지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



[덧글]

동연재/ 아침시인님 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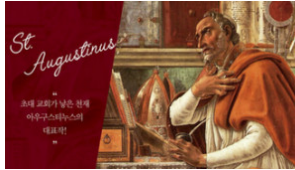
‘동시’로 읽고 박수치고 감탄합니다.

벽에 기댄 강아지풀인지 사진도 너무 멋집니다.

미구의 입꼬리가 귀에 걸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령들과 천사들의 비교



247. 그리스도만이 행복한 삶으로 이르게 해주는 중개자이다

가장 아래에 존재하는 죽음을 맞이할 불순한 존재들은 가장 위에 존재하는 죽지 않고 순수한 존재와 직접 만날 수 없으므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참된 중개자가 필요하다. 그런 중개자는 이 땅 위에 있어도 신과 매우 닮아 높은 곳에 사는 것과 다름없다.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은 그분이 지닌 인간성 때문에 함께 지내는 사람들로부터 더럽혀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분은 성육신(成肉身 신적인 존재가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 가운데 머무는 것) 때문에 오염될까 꺼려하지도 않았다. 신성은 육체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펴전2:5)고 한다. 그분의 신성은 성부(聖父)와 같고, 인성은 우리와 닮았다.

248. 진리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정령의 거짓

정령들은 거짓되고 속임수에 뛰어난 중개자이다. 부정한 영이 가져온 수많은 결과로 보아 비참하고 사악한 존재들이다. 정령들은 물체적 공간적 거리나 공기 같은 육체가 가진 가벼움으로 우리 혼이 앞으로 나아감을 막고 샅길로 엮나가도록 하여 영적인 성장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한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려는커녕 오히려 방해한다. 우리는 물질적인 발전으로 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향상, 곧 비물질적인 진보로 하나님께 다가간다.

249. 정령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성경에는 착한 천사와 악한 천사는 있지만 ‘선한 정령들’이야기는 없다. 많은 신들과 정령들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교도들조차, 학식이나 배움에 상관없이 자기 노예한테도 “너는 다이몬(악령)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만약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가 험담을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나쁜 의미로 ‘정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계속)

침묵(沈默) 3



2. 침묵과 등산

저는 혼자 등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동안 약 600회 정도 등산을 했는데 400번 정도는 홀로 산행이었습니다. 여럿이 산행을 하면 그 나름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산행은 자유롭습니다. 좀 빠르게 걷고 싶으면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멋진 풍경을 만나면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침묵기도를 하면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산행 이름을 ‘듣산’이라고 지었는데 “등산을 듣산이라고 잘못 쓴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듣산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을 줄여서 ‘듣산’이라고 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산을 열심히 오르다 보면 잡념이 쉽게 사라지고 몸 안의 탁한 기운들이 다 호흡으로 빠져나가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니 마음과 머리가 맑아집니다. 푸르른 녹색 세상을 보면서 눈도 정화가 되고, 예쁜 꽃과 오래된 나무, 거대한 바위를 보면서 대자연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그 장엄한 풍경 가운데 하나님의 웅장함이 느껴지고 피조물인 인간의 연약함에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말이 없어지고 겸손해집니다. 저는 산 정상이 아닌 조금 아래쪽 한적한 곳을 찾아서 15-30분 정도 조용히 앉아 ‘침묵’을 합니다. 그 시간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럿이 산행을 하다 보면 정상 인증이 목적인 사람도 있고, 이어폰을 귀에 끼도

무엇인가를 듣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산이 주는 그 무겁게 가라앉은 커다란 침묵의 무게를 느껴볼 새도 없이 빨리 올라왔다가 빨리 내려가기 바쁘죠.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도 홀로 산에 갑니다. (7433)

22. 침묵과 종소리

땡...땡...땡... 수도원의 상징은 종(鐘)입니다. 절집이나 다른 종교에도 종은 매우 중요한 수도의 도구입니다. 수도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삼종'을 칩니다. 수도자들이 '깊은 침묵'에 빠져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종소리는 침묵을 깨우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번 '침묵'을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일상의 모든 분주함을 멈추고 조용히 침묵 하면서 종소리를 듣다 보면 종소리를 따라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마구 휘저은 물속의 흙먼지가 서서히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백에 있는 예수원 같은 경우는 침묵이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들이 많기 때문에 삼종을 치는 시간, 약 3분 정도 이 시간만큼은 있는 자리에서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조용히 소침묵(小沈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종을 치기 전까지는 '대침묵'(大沈黙)으로서 일체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도자들이 정주하는 수도원은 보통 8시까지 소침묵, 8시 이후는 대침묵인데 예수원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절 프로그램에서도 '침묵'을 합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무엇인가를 듣고 보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침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 피하여 핸드폰도, 텔레비전도, 컴퓨터도,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이 단절된 곳으로 찾아가는 것을 피정(避靜)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도원보다는 규모가 작으면서 조금은 자유로운 '기독교 피정의집'을 열고 싶습니다. (7434)

23. 침묵과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마7:13-14) 제가 처음 수도원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은 동기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교리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침묵'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임재'라고 하며 그것이 더 깊어지면 '일치(一致)'가 됩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하고 고백하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받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대충 설교를 하지만 아닙니다.

이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서 누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침묵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쉽게 할 수 없으니 좁은 길인 것입니다. 침묵기도는 단숨에 도달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오랜 훈련 끝에 힘들게 도달할 수 있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7435)

24. 보물창고

연회비만 250만원인 VVIP(VIP보다 한 단계 높은 극소수 상류층)블랙카드 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합니다. 대기업 회장급 8명만 가지고 있다니 실물을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네요. 돈이 무제한으로 예치된 통장의 카드를 가지고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는 기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디쯤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까운 곳 '마음'에 계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밀림의 정글과 같아서 아직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성의 방'에 계십니다. 흔히 우리가 '내 영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교부시대 사막교부들은 이곳을 가장 깊숙이 들어가 탐험을 했던 분들입니다. 교부들의 글을 읽어보면 정말 영성의 '보물창고'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방에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바로 '침묵'입니다. 제가 침묵 기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내 마음속에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사람은 한 시간에 2천 가지를 생각하고 하루 24시간 대략 5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내 안에 또렷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대박! 완전 VVIP카드입니다.

그 중에 한 '10000'개만 글로 써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0자 원고지 1장 길이로 만사록(萬思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하기를 오늘 아침 3813까지 썼네요. 만약 만사록

만 계속 쓴다면 하루에 100개도 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7436)

25. 새로운 시대의 교회

2023년 현재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비율이 2%도 안 된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네요. 제가 2000년대 충북 보은의 산골짜기 폐교에서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다른 새로운 페러다임을 가지고 새롭게 시도되는 imaginarychurch(개념적교회)>라는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목회가 교회당 중심의 가견적 목회였다면 앞으로는 네트워크에 기초를 둔 불가견적 목회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신조적 정통성(credal orthodoxy)이 중요시되고 신학적 사색은 퇴조하게 될 것입니다. 신세대들은 예전(예배의 형식)문제로 이전 세대처럼 논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들꽃피는교회는 교회의 정체성(본질적 사명)과 역사성(시대적 역사적 사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들꽃피는교회는 개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로서 온 세상 성도들을 양육하는 네트워크 교회의 역할을 꿈꾸고 있습니다.>라는 교회 정체성을 적은 글을 후보에 매주 고정적으로 실었었죠.

인터넷이 막 생기면서 ADSL 속도가 10메가 바이트 일때(지금은 500-1000메가가 기본) 앞으로 세상은 인터넷 세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같이 사는 이들도 이해를 못했었으니 제가 너무 앞서나간 것이었죠. 오늘날 교회를 나간 청년들은 교회 밖에서 새로운 신앙의 생태계를 구축하든지 아니면 도태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청년 출석 비율이 2%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감을 못 잡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냥 이 세대에서 끝까지 '평화 - 평화로다'하며 안주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7437)

26. 청년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어떻게 사는 인생일까요? 성경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전12:1-2)고 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비전)을 찾아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사명으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평생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엉뚱뚱뚱 살다가 획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또, 다른 사람들 다 은퇴하고 인

생을 서서히 마무리 하는 다저녁때 사명을 찾았다며 신학교에 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신학교 졸업하는 나이가 목회자들 은퇴하는 나이와 같은데 그때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젊을 때 평생 해야 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이 엄청나게 복된 삶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겠다는 1차원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소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소명)도 모르고 그저 평생 뼈바지게 돈이나 벌라고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준비 해야 될 터인데 아, 그런데 교회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그 심각성도 모르고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신학대학원에 지원하는 신입생이 줄어서 정원 미달이라고 합니다. 어찌면 좋을까요? (7438)

27. 침묵이 두려운 진짜 이유

등산을 하면서 종종...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에 무언가를 끼고 있거나, 음악을 크게 쳐놓고 산을 오르고 내립니다. 산에 왔으니 산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속의 소리를 끊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변은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온통 소리로 가득 차 있어서 도무지 영혼이 쉬을 얻을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소리로 가득 채우는 이유는 '침묵'이 두려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침묵 가운데에서 자신과 정면으로 직면하기가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두려움을 '심심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조용하면 심심하다고 합니다. 소음은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습니다. 소음에 주의력을 빼앗기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 시간(새벽기도, 철야기도, 각종 기도시간)에도 찬송가 반주 음악을 틀어서 소리를 내 줍니다. 만약 기도 시간에 아무런 배경 음악이 없이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도만 해야 한다면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안토니 볼룸(Anthony Bloom)은 “왜 사람들이 침묵을 두려워 하는가? 마음속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꽉 채워진 내면이라면 안에서 흘러나오는 양식으로 사는데,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밖의 자극이 없으면 갑자기 허전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내면의 집에는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가물거리는 이미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기도의 체험>이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침묵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자신의 내면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들통날 것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에서 나올 것이 있다면 굳이 밖의 소리로 채울 필요가 없죠. (7441)

28. 마음을 비우는 훈련

‘침묵’이라는 주제로 글을 쓴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 마치 시각장애인에게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더듬더듬 더듬거리고 있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서 눈을 감고 침묵 가운데 빠져들면 너무나 쉬운 것을, 누군지도 모를 불특정 다수에게 침묵에 대한 글을 읽고 실제로 침묵기도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대상에게 허공에 손을 휘젓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시계의 알람을 10분 후로 맞추어 놓은 다음 편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 봅니다.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막 떠오르지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은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롬 7:19-20)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존재가 바로 ‘죄’라고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시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24)라고 탄식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죄의 생각’에서 나를 건져내는 방법으로 수도사들이나 교부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다시 시계의 알람을 10분 후에 울리도록 맞추어 놓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뿜는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렇게 숨을 내뿜으면서 생각도, 죄도 다 내보낸다고 상상합니다. 아마도 생각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7343) ©최용우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햇별같은이야기〉는 1995.8.12일부터 매일 아침 원고지 5매 1000자 정도의 짧은 칼럼을 28년 동안 매일 이-메일로 띄우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침편지입니다. 〈햇별같은이야기〉는 10000번 발행을 목표로 2023년 5월 현재 7500회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동안 쓴 글을 모은 350쪽 내외의 책 22권을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최용우’로 검색)



남경도 (사진:최용우)

남경도

뭐 사진 찍을 것 없나 하면서 두리번 거리는데, 원룸단지 위쪽 언덕에 꽃잔디가 예쁘게 피어 있다. 꽃잔디 사진 찍으려고 다가갔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파란 하늘에 붉은 복사꽃이 만개한 작은 나무가 보인다. 뺑 돌아 위로 올라가 보았더니 <고기굽는마을>식당 주차장 화단에 잘 자란 겹복사꽃 남경도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이렇게 큰 남경도는 처음 본다.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주인 아저씨가 나와 “25년 키운 남경도예요. 가지치기를 해서 작품을 만들었죠.” 한다. 정말 멋지다고 칭찬을 해주고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더니(이미 다 찍어 놓고서..^^) 얼마든지 찍으라고 한다.

남경도는 일본에서 개복숭아를 계량해 만든 꽃복숭아 나무이다. 일본 민화 그림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일본 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길가에 키 작은 조경수로 많이 심는다.

반도체 같은 유산균

보통 99.99%의 순도가 나오는 금을 순금이라고 한다. 반도체는 불순물이 섞이면 불량이기 때문에 반도체 실리콘에 사용하는 금은 순도 99.99999999%(텐나인)가 나와야 한다. 성경에서는 이 정도의 순도가 나오는 금을 '정금'이라고 한다.(애 4:1-2, 사13:12)



어디에서 부활절이라고 계란과 함께 준 유산균요구르트를 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 유산균요구르트인데, 유산균 함유량이 0.00056%이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서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 확대해 보았다.) 65ml중에 0.000325ml가 유산균이라는 뜻이다.

이 정도면 축구공에 먼지 하나 붙은 정도로 작은 양인데, 거의 의미 없는 함유량을 가지고 이름을 '유산균 요구르트'라고 붙이다니 이거 사기 아닌가? 거의 반도체급 함유량을 자랑하는 놀라운 유산균 요구르트이다.

딸들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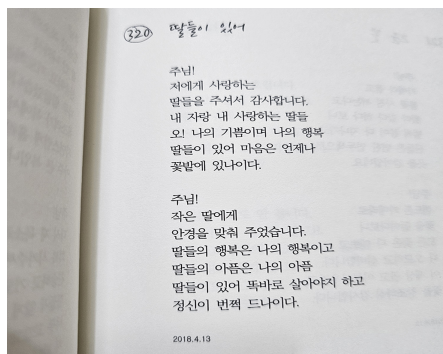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아내와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린다. 아내가 기도를 길게 하면 15분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10분 정도 걸린다.

아침에 주택가에서 찬송을 부를 수 없으니 찬송 대신 '시'를 읽는다. 성경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엡5:19)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으니 시를 읽는 것이다.

아내는 용혜원 목사님의 <날마다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를 순서대로 2-3편씩 읽고, 나는 내 시집(천번을 부른 주님 내입에는 찬양만)을 두 편씩 읽는다.

오늘 아침 '딸들이 있어'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울컥했다. 지금은 두 딸이 다 장성하여 부모의 품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한다. 작은 모르겠지만 딸들이 결혼하면 앞으로 딸들과 함께 살 일은 없을 것 같다.(살아서도 안 된다.)

그런 것을 생각하니 잠깐 마음이 울컥했다.



아이고머니나!

며칠 전 갑자기 뒤통수에 종기가 생겼다. 금방 없어질 줄 알았는데 3일 지나니 꽤 커졌다. 누우면 베개에 눌러서 아팠다. 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위치가 뒤통수라서 할 수 없이 동네 의원에 갔다.



할아버지 의사 왈 “이게 종기가 앵두처럼 낭창낭창하게 잘 익어야 따기 좋은데... 덜익었어... 뭐, 한 이틀 더 있다가 옮겨?”

“기냥, 따 주세요. 뭘 이틀까지 기다려요.”

“마취할까? 덜 익어서 좀 아플 수도 있네..”

“괜찮아요. 그냥 앵두 따는 것 맵기로 또옥, 따 주세요.”

“아플건디...” 음... 살을 찌는데, 눈물이 나올 만큼 아팠다. 마취할걸 ㅈㅈ 오마나~~ 머리카락 때문에 잘 안 붙는다며 누가 보면 마치 큰 수술을 한 것처럼 밴드를 크게도 붙여 놓으셨네.

봄맞이꽃

산책운동을 하는데 길가 잔디밭에 봄맞이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다. 풍성한 봄맞이꽃을 한 움큼 잡고 사진을 찍었다.

따뜻한 햇볕에 봄맞이를 하던 꽃들이 갑자기 커다란 손이 스스 다가와서 자기들 먹살을 잡고 뭔가 반짝이는 이상한 것을 들이대고 찰칵! 찰칵! 하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사진을 찍고 얼른 처음 상태로 퍼 놓았다. 생각해보니 봄맞이 꽃한테 미안하다. 아무리 꽃들이 말도 못하고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제 인간들 맘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자연을 무례하게 대했던 것을 반성함. 봄맞이꽃은 밭독이나 반 그늘진 곳에 앙증스럽게 핀다. 마치 하얀 보석으로 수놓은 것처럼 아름답게 무더기로 피는 꽃이다. 꽃말은 ‘봄의 속삭임’이다.

모자 생각다

“아빠, 정말 노란 똥모자 좀 버리세요. 멀리서 보면 머리에 노란 똥을 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똥똥어리 같은 내 얼굴을 받쳐주는 모자가 그나마 이거밖에 없는데 버리라 카든... 뭐, 다른 모자를 하나 사주고 버리라 카든지...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모자로 하늘을 가리고 다니기 때문에 모자가 없으면 밖에 못 나가야.”

그런데 정말 딸 2호가 모자를 사서 택배로 보내왔다. 할 수 없이 노란 똥모자는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얀 떡모자를... 머리에 이고 다니며 떡장사 해야겠네.

그래도 백화점에서 산 블랙야크 모자이다. 딸이 사준 소중한 모자니 잘 이고 다닐게. 그런데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깐 우리 동네 중광사 스님이 쓰고 다니는 모자랑 똑같애.



순례자 성도

분당에서 목회하던 아무개 목사님이 은퇴한 후 첫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생각해보니 갈 교회가 없어서 당황했다고 한다. ‘원로 목사란 이름으로 교회에 남아있으면 후임 목사님께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멀리 훌훌 떠나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호기롭게 나왔는데, 막상 훌훌 날아갈 곳이 없더라는..’

같은 교단이라고 몇몇 교회를 찾아가 봤는데 다들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그래서 즐지에 지금은 주일에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되셨다고 한다.

그런 가나안 성도가 의외로 많다. 나도 전에는 환영해 주는 곳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는 ‘가나안 성도’였었는데, 지금은 ‘순례자 성도’이다.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이단만 아니면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찾아가서 함께하는 ‘순례자 성도’가 되었다.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600회 대둔산(878m) 아내와

이제는 힘들어 산꼭대기에는 못 올라간다는 아내를 배려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대둔산(大菴山)을 선택했다. 그 정도 올라가면 정상까지는 기어서라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구름다리'를 건널 자신이 없다고 포기하네.

과거 대둔산 구름다리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스틸이 있었는데, 새로 만든 철재 구름다리는 너무 튼튼하다. 할 수 없이 나 혼자 구름다리를 유유히 건너 정상까지 달려갔다가 내려왔다. 대둔산 정상인 마천대에는 개척탑(開拓塔)이라는 정체불명의 탑이 세워져 있다. 1970년에 완주군민들이 콘크리트탑을 설치했는데, 새마을운동을 막 시작한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세웠다는 말이 있다. (2023.4.8.)



▲제601회 계족산(423.6m) 2023.4.18

▲제602회 비학산276 (일출봉252m)

▲제603회 갈기산(585m 충북 영동)

바깥모리 주차장 산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상까지 계속 오르막길이다.

1.5km거리를 거의 기어 올라갔다. 산의 생긴 모양이 말갈기를 닮아 '갈기산'이라는데 기암괴석이 많은 돌산이다. 정상에 서니 그림 같이 흐르는 금강이 발밑에 있고 한없이 부드러운 산 능선을 조망할 수 있었다. 정상석은 돌출된 바위 위에 있었는데, 사진을 찍으려면 바위 끝에 서서 찍어야 해 매우 위험했다. 너무 대충 박아놓고 내려가 버린 것 같았다.(2023.4.28.)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소만-가득 찬 보릿고개

소만(小滿)은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성장하여 '가득 찬다'(滿)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만은 보릿고개의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쌀이 겨울 봄을 지나며 거의 바닥나는 5월과 6월은 아직 보리를 수확하기 전이라 사람들은 허기를 채울 구황작물을 찾아 먹으며 버텼습니다. 죽순을 따다 고추장에 찍어 먹고, 썩을 캐 개떡을 만들어 먹고 냉이국도 늦봄이나 초여름에 많이 먹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이 나의 유년 시절 그때 그 시절입니다. 울 엄마 아빠는 왜 하필이면 그렇게 힘든 시절에, 힘든 계절에 나를 낳았을까? 길가의 울타리에 붉은 장미꽃이 가득한 이즈음에 나의 생일이 있습니다. 올해는 윤달이 들어 있어서 생일이 조금 늦습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침묵'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입재'라고 하며 그것이 더 깊어지면 '일치(一致)'가 됩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하고 고백하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옥천 '수생식물학습원'에 갔을 때, 야외정원을 천천히 침묵하며 돌아보라는 의미로 붙여 놓은 풋발 사진을 이번 달 표지로 사용합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 신간 <들꽃면지12권 장미꽃호> 504쪽 21000원 -5월10일 출간
 - 69권 <들꽃면지11권 과꽃호> 506쪽 21000원 -4월13일 출간
 - 68권 <들꽃면지10권 천인국꽃호> 504쪽 21000원 -3월13일 출간
 - 67권 <들꽃면지9권 분꽃호> 510쪽 21100원 -2월8일 출간
 - 66권 <들꽃면지8권 영경귀꽃호> 510쪽 21100원 -1월11일 출간
 - 65권 <들꽃면지7권 민들레호> 510쪽 21100원 -12월14일 출간
-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63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3.4월 재정결산

2023년 4월(1-30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광현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기순 박승현 박신혜 양희창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정옥진 정효숙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황성운 1004 구글 새벽기도 성실교회 실로암교회 안디옥교회 함안중앙교회
모두 30분이 1,408,584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3.5.20.일까지 7525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자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70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숙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
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
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새로 나온 책

제12권 합본

이 쪽지는
구원의 비밀과
마음의 양식을 담아
사랑으로 전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들꽃편지〉제12권 장미꽃호
최용우 편집 504쪽 21,000원
교보문고 퍼플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회입니다. 그동안 펴낸 〈들꽃편지〉를 약 500쪽 분량 정도로 합본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회입니다. 〈들꽃편지 제12권〉은 2008.12월 제479호부터 2010.10월 제501호까지 2년 동안 매월 발행한 23회분을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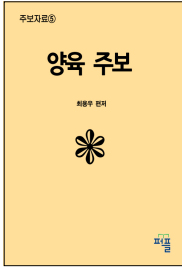
이 시기는 〈주보자료〉시리즈 〈품나는 주보〉(2009년), 〈탐나는주보〉(2010년)를 만들었습니다. 주보 자료의 내용은 〈들꽃편지〉에 매월 똑같이 실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동네에 있는 빈집을 한 채 빌려 예쁘게 꾸며서 〈햇볕같은집〉이라는 자그마한 피정의 집을 시작하여 많은 분들이 조용히 쉬어가셨습니다. 특히 좋은이(중)와 밝은이(초)의 친구들이 아지트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매월 만들어서 전국에 띄웠던 월간〈들꽃편지〉2년분을 모았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용우 저서



⑤ 양육주보+파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여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한다는 주제에 맞추어 편집한 양육 중심의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⑥ 전도주보+파일

무조건 전도하자! 죽기 살기로 전도하자. 주보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매주 다른 내용의 전도지를 담은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⑦ 명품주보+파일

하나님 앞에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글을 읽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의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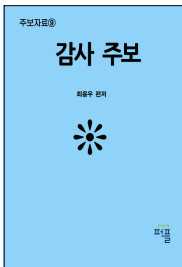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⑧ 좋은주보+파일

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좋은 신앙인이 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좋은 영성의 글들을 모아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⑨ 감사주보+파일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며 신앙생활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1년 동안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귀에 감사가 박히도록 하는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⑩ 기도주보+파일

기도주보는 한국교회에 다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등 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가득 담은 주보를 대신 만들어 1년 52주분 .hwp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해드립니다.

14,000원 220쪽(컬러) 퍼플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속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52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